

민족영화로 나아가는 디딤돌 대중연대

문화특집 — 독립영화의 현상학과 전망

현재에 있어서 '영화'를 논한다는 것은, 현명하다는 사람만이 바라볼 때 이상주의자의 자기스스로 열정에 지나지 않는 순진함으로 치부되고, 그것은 구조적 모순이 감춰져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투쟁이고 반성이 불발되기도 모른다. 그렇지만 역사적 경험은 반복되고 발전하므로 새로운 가능성에 의하여 낙관적인 미래를 예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독립영화운동 진영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썸머처럼 빠져나간 뒤의 적막함이 기다림으로 남아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87년 6월항쟁 이후의 사회변혁에 있어서 일부분은 주동하려 했던 미다한 영화적 실천의 과정을 되새겨 볼 때,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평가를 인정할 수는 있다.

그 결과로 독립영화운동진영에 새겨진 유산은 결함없이 반복된 자기정체성의 확인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것을 지워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80년대 부회 영화운동을 표방한 소집단들의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영화운동이라고 취급되기에는 일회적이었던 소시민주의적 접근으로 출발한 독립영화는 '작은 영'로에서부터, 제3세계적 영화운동론을 본보기로 '민중영화'의 앞길을 열었지만, 이념적 지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있었던 비제의 부속화 인식으로, 관념화된 수준에서 제기된 '민중영화'를 도출 하였다.



전날 수용의 획일적 대중관계 탈피해야

구체적, 지속적 활동 공간 확보 필요

앞에서 언급한 독립영화라는 개념의 특성과 동기가 유효한 대중적 참여 공간이라는 것이 제적 성과물에 대한 평가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전달과 수용이라는 양방향의 관계로 규정되었을 뿐, 일반대중에 대하여 상호 지향적 상호로 형성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정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영화운동의 일정한 중심성과 함께 전체적으로 양면적 대중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영화의 건설적인 재구성 구조는 제작과 보급 및

연구, 교육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그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만 치중할 수 없는 것이 독립영화의 한계이며 가능성이 있다.

영화운동 진영은 대상을 맞이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그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만 치중할 수 없는 것이 독립영화의 한계이며 가능성이 있다.

이와같이 일정한 틀의 범위에서 참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비해서 독립영화 역시, 사회적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보다는 무언가를 입장에서 소극적인 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립영화의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노동자계급의 영화라는 칭호를 수여 받았으며 전노협 관련 기법영화로까지 지정되는 성과를 보여주었던 '파업전' 이후의 반성과 전망은, 여전히 회색되어 왔으며 근본적인

개선이 없는 계속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전국의 여러 영화운동 집단들과 지역별운동 단체까지 말라가던 '중중상상'으로 형성된 운동과 관련된 단합의 대응은 영화운동의 잠재력을 재확인 것과 함께 현실을 낙관해 가지 않았던 지속적인 정경적 사해라고 기억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천을 예비할 수 있는 계기로서 영화운동의 단합된 대외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서로의 기본적인 입장 교환이 필요하며 각 집단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환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수준에서 앞으로의 과제

또한 독립영화의 제작이라는 측면에서 재구성 구조는 사용자, 제작과정, 보급구조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은 제작기술의 숙련된 역할과 민주적인 공동창작 방법론의 확립에서부터 보급구조의 내실화로 상영공간의 확보를 대중적 참여에 의한 실천을 전개하여, 이에 대한 다음 작업의 방향 등으로 확고한 신념을 견지하고 일정한 관점에서 작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상 매체로써 주요한 시기마다 현재 대중의식을 담백적으로 고안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던 독립

시간인내

를 졸업하고 1968년 '장차와 비평'에 '간성과 비평'을 발표하면서 비평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고려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배영수원집, '서양사 강의' 독자의 편집정비에 도움

'한글어카데미'가 배영수씨의 편집으로 '서양사 강의'를 출간 하였다.

모두 1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장 '고대 지중해세계'를 시작으로, 중세시대와 근대 정신의 대두, 그리고 19세기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현대 자본주의에 이르는 각 시대를 사술하고 있다. 대학 수준에서 서양 사회를 역사적 안목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이 책은 서양 사회가 걸어온 복잡한 역사적 경로를 재검토하고자 기획되었다.

문화인선

오는 23일 오후7시 대우문화재단 302호 세미나실에서 지원자들을 위한 입학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전화 528-1201~4)

문예 아카데미 가을강좌 6개분야, 14일 개강

'문예아카데미'는 92년 가을 강좌를 오는 14일 오후 7시부터 문예아카데미 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정규강좌는 '한국 리얼리즘론의 전개', '서양 음악사의 비평적 이해' 등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역사, 건축 등의 6개 분야에 대해 개설한다. '문예아카데미'는 현실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보듬고 현대예술의 새로운 성과를 순기능적 심화하여 진정한 민족문화와 예술을 연구하고자하는 모임이다. (문의전화 745-6471)

21세기 테크노피아의 대학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인간·기술·미래 대학생 산문공모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대학생 여러분의 바램과 상상을 적어 보내주세요.

공과 이상은 새로운 개혁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공성은 21세기 대학의 변화상에 대한 대학생 여러분의 희망과 바램을 공모합니다. 미래의 최첨단 전기·전자 테크놀로지를 대학에 활용하면 대학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여러분의 생각을 원고지에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꿈과 공성의 기술의지로 미래의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봅시다!

공모주제
21세기의 변화된 대학생활 모습
● 강의의 강의양식의 변화 ● 도서관 활용시스템
● 생활실습을 통한 학습 ● 새롭고 창의적인 상상
● 기타 영역 (생태·태양·산림) 등의 주제중 택일

공모요령
주제에 관한 바램과 상상을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로 정리하고 원고와 원고지 상단에는 학교, 학과, 성명 및 전화번호를 적어 보내주세요. (세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자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소유임)

공모자격
신원대학교 이상 대학(원) 재학생

공모요강
'92년 9월 21일 (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공모처
① 150-7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9번지
테크노피아인문연구소 (주) 금성 전자연구소
문의전화: 787-1657, 1691 테크노피아 광고담당자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장학금 100만원)
● 우수상 4명 (장학금 450만원)
● 가작 5명 (각 20만원 상당의 상품)

발 표
당선자는 개별 통지하며, 10월 초 대학신문에 발표 게재합니다.

금성

만을 재확인 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어머니, 당신의 아들'의 제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재확인되었던 공동성명 투쟁이라는 의미는 이미 상실되어 버린채, 고립적인 보급으로 연출자가 영화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시뮬레이션 속에서 독립영화운동의 필적작업이라는 마체의 구분에 의하여 대응시켜 버린 것이다.
'난민 교편을 열며'에서도 예외가 있던 문제점들을 답습한 점이 불과하며 점차적으로 독립영화운동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공공적인 수용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제작주체인 영화제작자 '장산'이 시인한 것처럼 이전 작품인 '파업전'에서의 작업결함이 축적되기 보다는, 독립영화운동의 진보의 불발현상으로 인해 상업영화의 유출에서 오는 새로운 세대의 충원에 의한 작업결함의 미숙과, 제작비의 과다 책정, 자금이 있어서의 비효율성과 무의의성은, 독립영화 제작에 있어서 건

한 원칙의 현실적 피아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협회에 대한 열망만을 기적으로 남겨 놓게 된다. 물론, 창작주체 스스로의 원인에 있어서 발생한 오류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독립영화의 발전과정에 서 거둬들이기 위한 예비반 통과의 레슨서 더 이상의 결합적 사고를 경증받기에는 부유미하다. 그것은 짧은 영화운동의 시간적 결과에 의하여 기인하기도 하지만, 제작의적인 운동적열망의 진화에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야 할 것이다.
제반의 민족민주운동 세력과의 실질적인 연대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영화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획득하지 못했으며, 막연하게 영화가 가장 대중적인 매체라는 차원의 이해 이상의 실천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대중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독립영화 운동자들에게 대한 서로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영화운동에 베풀고 있는 단체와 단체간의 연대 강화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것이다.
이같은 현대적 위치에서 전체 독립영화운동은 자기 역할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영화산업 클레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체적인 연대관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대중에 있어서 대중적 실천에 의한 영상매체는 '공평선거감시 위원회'라는 이의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권영숙 (독립영화협회 기획)

캐릭터 문화인

"수녀님" 한마디와 웃음으로 시작한 연극

경희극예술연구회 회장 손재호(정경대 경영·2)군

연극 관계 그늘은 피부의 그와 처음 만나서 '테이프 문화인' 안에 실리면 어쨌든 나는 제 안의 연극관을 밝혔다.

그는 '문화인이 아니라서 양대'라며 경수를 잃지 않는 말로 대답을 내뿜었다.

처음 경희극예술연구회(이하 경희극회)에 들어와 자신의 첫 번째 '신'의 밤에서 '수녀님'이라는 단 한마디를 외치며 우는 연극기를 펼쳤는데, 그에게는 그 연극기 지금까지 해온 어떤 배역보다도 많은 열정을 쏟은 바

가 많은 배역속으로 얼마나 깊어 들어가서 연기하느냐'라며 자신의 연극관을 밝혔다.

서울 YMCA연극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가장 자극을 받아 연극에 관심을 가지게 된 손재호는 대학교 들어오면서, 자신의 소극적인 성격에 고쳐서 경희극회

"내용과 문제를 진실하게 바라보는 노력이 중요"

에 들어갔다고 한다. 가장 강렬했던 연극은 원복회생자의 에환을 다룬 극단 '한

의 원복회 생상·장비면에서 과거보다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극이 사회 속에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연극계 자체의 고립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희 연극을 '어떤 소재나 주제를 갖느냐 보다는 얼마나 진실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나'에 초점을 맞춘 손재호는 최근 경희극회의 2학기 공연작품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좋아하는 배우로 나이와 관계없이 늘 손수하고 진솔하게

시는 김혜자씨를 꼽는 손재호는 '몇몇 학교처럼 좋은 시상이나 환경들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경희극회가 마음놓고 연극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보장해주고 학교당국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었'으면 하며 손재호는 희망사항을 털어놓았다.

군대를 재대입 2학년이 되 환경이 전부터 학교에 나와 직접 연극을 할 정도로 경희극회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는 손재호를 보면 경희극회의 밝은 내일을 보는 듯했다.

(이인수 기자)

테크노피아

테크노피아인문연구소의 첨단 전기·전자기술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인간생활을 이루는 기술혁신을 꿈꿉니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대학생 여러분의 바램과 상상을 적어 보내주세요.

공과 이상은 새로운 개혁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공성은 21세기 대학의 변화상에 대한 대학생 여러분의 희망과 바램을 공모합니다. 미래의 최첨단 전기·전자 테크놀로지를 대학에 활용하면 대학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여러분의 생각을 원고지에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꿈과 공성의 기술의지로 미래의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봅시다!

공모주제
21세기의 변화된 대학생활 모습
● 강의의 강의양식의 변화 ● 도서관 활용시스템
● 생활실습을 통한 학습 ● 새롭고 창의적인 상상
● 기타 영역 (생태·태양·산림) 등의 주제중 택일

공모요령
주제에 관한 바램과 상상을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로 정리하고 원고와 원고지 상단에는 학교, 학과, 성명 및 전화번호를 적어 보내주세요. (세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자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소유임)

공모자격
신원대학교 이상 대학(원) 재학생

공모요강
'92년 9월 21일 (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공모처
① 150-7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9번지
테크노피아인문연구소 (주) 금성 전자연구소
문의전화: 787-1657, 1691 테크노피아 광고담당자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장학금 100만원)
● 우수상 4명 (장학금 450만원)
● 가작 5명 (각 20만원 상당의 상품)

발 표
당선자는 개별 통지하며, 10월 초 대학신문에 발표 게재합니다.

금성